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1월 15일(일) 총 5매			
담당 부서	인천문화 예술회관	담당자	• 기획운영팀장 최정화 ☎420-2710 • 담당자 정수산나 ☎420-2736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인천시향이 펼치는 클래식 만찬
- 인천시립교향악단의 풍성한 2023 시즌 스타트 -
- 1.16(월) 상반기 공연 티켓 그랜드 오픈 -

매년 새로운 레퍼토리와 기획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천시립 교향악단이 새로운 시즌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화제를 이어간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총 4개의 핵심 시리즈가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올해 시즌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며 클래식 성찬을 펼쳐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2023년 한 해 동안 고전 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를 아우르며 실내악부터 대편성 교향곡까지 총망라한 공연들을 개최해 수준 높은 기량을 보여줄 계획이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클래식 전용인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로 주 무대를 옮겨 정통 클래식 사운드를 구축한다.

2019년에 시작해 인천시향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펼쳐보이는 “뉴 골든 에이지” 시리즈는 대편성 곡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5월에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메인곡으로 연주하며, 첼리스트 심준호와 협연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협주곡 1번도 들려준다.

이어 6월에는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5번, 그리고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한다. 협연자는 아일랜드 왕립음악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세계 유명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존 오코너이다.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그의 명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클래식 분야의 거장들과 조우하며 인천시향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장의 숨결”에서는 주목해야 할 2명의 여성 음악가들을 만난다.

꽃피는 4월에는 ‘봄 위에서 노래함’이라는 주제 아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이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찬가를 부른 소프라노 황수미와 함께한다. 서정적인 그녀의 목소리로 베르트, 코플랜드 등 현대 작곡가들의 곡을 들으며 성큼 다가온 봄을 느낄 수 있다.

11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과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하며 교감한다.

또한 ‘겨울의 문턱에서’라는 테마로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을 연주해 평화와 걱정, 감사 등 인생의 굴곡을 지나 겨울에 다다른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다.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을 선정해 클래식의 현 시점을 조망하는 “클래식 나우 시리즈”도 주목할 무대이다.

3월에는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과 최수열 지휘자가 호흡을 맞추어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등을 들려준다. 12월에는 세인트 폴 챔버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이자 솔리스트로 활동 중인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에게 매료되는 무대를 예고한다.

K클래식 열풍의 핵심으로 떠오른 대한민국의 피아니스트들을 만나 그들의 음악세계를 탐구하는 “피아노 열전”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세계적인 지휘자 게르기예프와 정명훈이 인정한 피아니스트 임주희와 이탈리아 부소니 국제콩쿠르에서 5개 부문을 석권하며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박재홍을 각각 7월과 9월에 만나본다.

이 외에도 10월에는 바그너, 베버, 브람스 등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오롯이 즐기는 <고전적 낭만>이 기다린다.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 중인 바수니스트 김민주가 협연해 바순의 숨겨진 매력을 뽐낸다.

그밖에도 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음악회>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의 텃밭을 가꾸는 <아이사랑 태교음악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음악회>등이 2023년 시즌을 보다 풍성하게 채운다.

더불어 인천시향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기회로 삼아 시민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야외무대 및 찾아가는 연주회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에 열리는 4개 공연(3~6월)의 티켓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엔티켓과 인터파크에서 동시에 오픈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5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음악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1만원 이하로 책정할 예정이다.

이병욱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은 “매년 그래왔듯 인천시민들에게 소중한 클래식 선물을 선사한다는 마음으로 2023 시즌을 정성껏 기획하고 준비했다. 우리의 선물을 통해 여러분들의 일상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한다.” 고 말했다.

문의) 인천시립교향악단 032-438-7772

<참고> 2023시즌 프로그램 내용

새로운 황금시대를 제시하다 : 뉴 골든 에이지 - 드보르작 “신세계로부터” (지휘 이병욱 / 첼로 심준호) -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5번” (지휘 이병욱 / 피아노 존 오코너)
거장과 조우하다 : 거장의 숨결 - 봄 위에서 노래함 (지휘 이병욱 / 소프라노 황수미) - 겨울의 문턱에서 (지휘 이병욱 / 바이올린 윤소영)
K클래식의 현시점을 조명하다 : 클래식 나우 -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편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송지원) -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 편 (지휘 이병욱 / 클라리넷 김상윤)
피아니스트의 음악세계를 탐구하다 : 피아노 열전 - 피아니스트 임주희 (지휘 이병욱 / 피아노 임주희) - 피아니스트 박재홍 (지휘 이병욱 / 피아노 박재홍)
독일 낭만 음악 안에서 거닐다 : 고전적 낭만 (지휘 이병욱 / 바순 김민주)
선물같은 음악을 나누다 :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i사랑태교음악회, 청소년음악회, 가족음악회, 송년음악회

〈불임〉 관련 사진



인천시립교향악단



이병욱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